

5년 만에 풀체인지, 8세대 쏘나타... 구원투수 '특명'

HYUNDAI

현대차, 11일부터 사전계약
차세대 디자인 철학 반영
디지털키 등 첨단사양 적용
기본 가격 2346만원부터



신형 쏘나타 전측면 모습

현대자동차가 8세대 신형 쏘나타의 외관과 내부 디자인 등을 공개하고 11일부터 사전계약에 나선다.

신형 쏘나타는 지난 2014년 7세대 모델 출시 후 5년만에 선보이는 8세대 모델로 이번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쏘나타는 1985년 1세대 출시 이후 지금까지 세계 시장에서 860만대 넘게 팔린 현대차의 대표 중형세단이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은 현대차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모델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한 콘셉트카 '르 필 루즈'를 통해 발표한 차세대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를

신형 쏘나타에 최초로 적용해 혁신적 디자인과 역동적인 중형세단의 이미지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신형 쏘나타의 전면부는 매끈한 구의 형상에서 느낄 수 있는 크고 대담한 볼륨감, 맞춤 정장의 주름과 같이 예리하게 가장자리를 처리한 후드가 주는 스포티 감성 등 요소가 조화를 이룬다. 주간주행등은 비점등시 크롬 재질로 보이지만 점등 시에는 램프로 변환돼 빛이 투과되는 '히든라이팅 램프'가 현대차 최초 적용됐다. 측면부는 도어글라스 라인에서 주간주

행등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크롬 라인을 통해 라이트 아키텍처를 구현했다. 후면부는 슬립한 가로형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갖춘 리어콤포비램프, 공력개선 리어램프 에어로 핀, 범퍼하단의 가로형 크롬라인, 리어 콤포비램프의 가로형 레이아웃과 비례를 맞추는 보조제동등으로 구성된다.

실내는 스틸스기를 본따 ▲날렵한 형상의 센터페시아 에어벤트 ▲미래 지향적 버튼의 전자식변속레버(SBW) ▲일체형 디자인의 핸들 및 가니시 ▲조작 편의성을 고려한 스티어링 휠 ▲스포티한 감

성의 클러스터 등을 적용했다.

신형 쏘나타는 기존 모델(뉴라이즈)보다 전고가 30mm 낮아지고 휠베이스가 35mm, 전장이 45mm 확대됐다. 외장컬러는 ▲화이트 크림 ▲슈머링 실버 ▲햄톤 그레이 ▲녹턴 그레이 ▲글로잉 옐로우 ▲플래임 레드 ▲옥스포드 블루 ▲미드나잇 블랙 등 8종으로 구성된다. 내장은 ▲블랙 ▲네이비 투톤 ▲그레이지 투톤 ▲카멜 투톤 등 4종의 컬러로 운영된다.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도 대거 적용됐다. 현대차는 ▲스마트키 없이 스마트폰

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현대 디지털 키 ▲빌트인 캠(Built-in Cam)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프리미엄 고성능 타이어 '피렐리 P-zero' 등 첨단 및 고급 사양들을 현대차 최초로 신형 쏘나타에 적용했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의 모든 엔진을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스트림'으로 변경해 연비를 높였다. 신형 쏘나타는 가솔린 2.0, LPI 2.0, 가솔린 1.6터보, 하이브리드 등 4개 모델로 운영된다.

가솔린 2.0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2.0 CVVL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으며 최고출력 160마력, 최대토크 20.0kg·m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연비는 리터당 13.3km다. LPI 2.0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L2.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돼 최고출력 146마력, 최대토크 19.5kg·m의 동력성능과 리터당 10.3km의 연비를 확보했다.

신형 쏘나타의 가격은 2346만원부터 시작하며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3289만원부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T, 전국 대리점서 어린이 코딩교육 진행

SK텔레콤이 전국 주요 도시의 지점·대리점을 개방해 어린이(6~10세)를 대상으로 스마트로봇 '알버트'를 활용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초등컴퓨팅교사협회와 협력해 자사 유통망을 공유 인프라로 활용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나는 코딩 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는 초등학생의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결성된 국내 공식 교사 연합 단체다.

SK텔레콤이 전국 주요 도시의 지점·대리점을 개방해 어린이(6~10세)를 대상으로 스마트로봇 '알버트'를 활용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초등컴퓨팅교사협회와 협력해 자사 유통망을 공유 인프라로 활용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나는 코딩 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는 초등학생의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결성된 국내 공식 교사 연합 단체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클라우드 PC시장 공략

(3000억 규모)

속도·수용 용량 2배 이상 개선
최대 3만대까지 PC 접속

SK브로드밴드는 국내 통신업체 중 최초로 자체 기술을 내재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의 '스마트오피스'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클라우드 PC 서비스는 개인이 PC에 사용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 구현해 개인화된 컴퓨팅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여받은 ID와 패스워드로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유무선 단말기에서 개인 PC에 접속해 일처리를 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클라우드 PC는 외산 솔루션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고, 서버당 가입자 수용 용량도 2배 이상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앱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가상화하는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해 최대 3만대까지 PC를 수용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6년부터 SKT의 연구·개발(R&D) 기술과 오픈스택



모델들이 클라우드 PC를 소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기술을 활용해 클라우드 PC 핵심요소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해 외산업체에 지불해야 할 라이선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원가 경쟁력을 향상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사무실에 적용하면, 지정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인터넷이 있는 곳 어디든 모니터와 키보드만 있으면 개인 PC 환경으로 접속해 일을 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클라우드 PC 산업을 향후 B2C 영역으로도 확대한다.

국내 클라우드 PC 서비스 시장은 2023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난인 기자

LG디스플레이, LCD서 OLED로 중심이동

지난해 7년 연속 영업흑자 달성
중소형 OLED사업 안정적 궤도

LG디스플레이에서 적자를 거듭해 온 OLED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 TV용 대형 OLED는 물론 중소형 OLED 사업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매출액 24조3366억원, 영업이익 929억원을 기록하며 7년 연속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상반기에는 3264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 1400억원, 4분기 27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2017년 2조4616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감안, 부진한 성장세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원인은 글로벌 경쟁 심화, 대형 LCD 패널의 판가하락이다.

올해는 다행히도 LCD가 아닌 OLED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실적 반전이 기대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 OLED의 안정적인 수율 및 생산성을 확보하고 연간 290만대까지 출하량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하반기부터 대형 OLED는 흑자를 기록했고 TV 내 OLED 매출 비중도 20% 이상 확대됐다.

IB업계에서는 중소형 OLED 사업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E5 라인의 낮은 가동률(40% 이하로 추정)과 수율 이슈로 인한 고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소형 OLED 사업에서 영업적자 1조 1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E5 라인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규 E6 라인에서 신제품 기술 이슈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중소형 OLED 매출액은 1조9510억원, 영업이익자 5920억원으로 영업적자가 전년 대비 4180억원 축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LG전자와 소니의 OLED TV 패널 주문 증가로 OLED TV 판매량이 421만대를 기록, 31.9%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OLED로의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패널 공장을 3분기부터 월 6만장 수준으로 양산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대형 OLED 생산량을 월 13만장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지난해 290만대였던 판매량을 올해 40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휘도와 응답속도 등 OLED의 성능을 더욱 향상해 화질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올 하반기부터 88인치 OLED 8K 출시를 시작으로 77인치, 65인치 OLED 8K까지 라인업 확대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KT, 전국 8개 도시 '5G 에지 통신센터' 구축

해당 지역서 데이터 처리 가능
4G LTE보다 최대 44% 빨라

KT는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국 주요 8개 도시에서 '5G 에지(Edge) 통신센터'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5G 통신에서는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구간에서 1msec의 짧은 시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5G의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KT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8개



KT 직원들이 '5G 에지 통신센터'에서 KT의 5G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있다.

/KT

주요 도시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5G 에지 통신센터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 무선 데이터 처리 방식에서는 전

국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데이터 트래픽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전송돼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KT는 이런 기존 구조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5G 에지 통신센터에 데이터 처리 장치를 구축했다.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용자의 데이터 트래픽이 수도권 통신센터까지 전송되지 않고도 해당 지역에서 처리가 가능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지연이 감소된다.

실제 제주도에 KT 5G를 이용하면 제주에 구축한 에지 통신센터를 통해 기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최대 44% 빠른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김난인 기자 silkni@